

Ⅲ. 보험산업 현황

1. 주요지표 동향

가. 수입보험료

- FY2004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전년 대비 7.2% 성장을 기록함.
 - 2005년 4~8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2.8% 성장을 기록함.
 - 2005년 4~8월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인상을 통한 자동차보험이 견조한 성장을 하고, 통합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장기손해보험이 높은 성장을 거두어 전년동기 대비 9.8% 성장함.

<표 III-1> 생·손보사 수입보험료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| 연도 종목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4~8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생명보험 | 516,538 | 473,643 | 490,668 | 503,925 | 537,506 | 230,042 |
| | 10.5 | -8.3 | 3.6 | 2.7 | 6.7 | 12.8 |
| 손해보험 | 168,617 | 186,959 | 206,129 | 213,782 | 232,189 | 102,627 |
| | 13.8 | 10.9 | 10.3 | 3.7 | 8.6 | 9.8 |
| 합 계 | 685,155 | 660,602 | 696,797 | 717,707 | 769,695 | 332,669 |
| | 11.3 | -3.6 | 5.5 | 3.0 | 7.2 | 11.7 |

주: 1)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.

2) 특별계정, 부수사업이 포함됨.

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월보』, 각 월호
 생·손보사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. 총자산

- FY2004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보험료 수입 증가와 투자영업이익의 확대에 힘입어 양호한 자산 증가를 보여 전년동기 대비 12.8%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그 증가세는 소폭 감소함.
 - 생명보험 총자산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및 준비금 증가 등의 원인으로 전년 대비 12.9% 성장한 211조 6,098억원을 기록함.
 - 손해보험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의 급성장에 따른 준비금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.0% 성장한 43조 4,720억원을 기록함.
- 2005년 8월말 총자산 규모는 투자영업과 보험영업수지의 감소와 수입보험료 증가의 상쇄 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12.6% 증가한 236조 5,815억원을 기록함.

<표 III-2> 생·손보사 총자산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| 연도 종목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8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생명보험 | 1,207,300 | 1,430,340 | 1,642,225 | 1,873,615 | 2,116,098 | 2,212,238 |
| | 9.5 | 18.5 | 14.8 | 14.1 | 12.9 | 12.7 |
| 손해보험 | 280,490 | 327,267 | 353,683 | 388,229 | 434,720 | 450,522 |
| | 6.0 | 16.7 | 8.1 | 9.8 | 12.0 | 12.0 |
| 합 계 | 1,487,790 | 1,757,607 | 1,995,908 | 2,261,844 | 2,261,844 | 2,365,815 |
| | 8.8 | 18.1 | 13.6 | 13.3 | 12.8 | 12.6 |

주 : 1)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.

2) 특별계정이 포함됨.

자료 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.

생·손보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2. 생명보험

가. 수입보험료

- FY200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53조 7,506억원으로 전년대비 6.7% 증가했고 CY2004 경상 GDP 성장률이 7.4%인 것에 비교하여 견조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.
-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3조 4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.8% 증가하였고, 이 수치는 동 기간의 경상가격 GDP 성장률인 3.2%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동 기간에 대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92.5%를 차지하는 개인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11.2% 증가했으며,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중 7.5%를 차지하는 단체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36.3% 증가함.

<표 III-3>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(1)

| 구 분 |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4~8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국내 경제 | 경상GDP (10억원) ¹⁾ | 578,665 | 622,123 | 684,264 | 724,675 | 778,445 | 382,260 |
| | 증 가 율 ²⁾ | 9.3 | 7.5 | 10.0 | 5.9 | 7.4 | 3.2 ³⁾ |
| 생보 산업 | 보험료(억원) | 516,538 | 473,643 | 490,668 | 503,925 | 537,506 | 230,042 |
| | 증 가 율 ²⁾ | 10.5 | -8.3 | 3.6 | 2.7 | 6.7 | 12.8 |

주: 1) GDP는 CY 2000 명목가격 기준을 따르며, 2003년 이후는 잠정 수치임.

2)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.

3) CY2004 상반기 경상 경제성장률임.

자료: 한국은행, 『조사통계월보』 및 www.bok.or.kr.

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.

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월보』, 각 월호.

<표 III-4>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(II)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초회보험료 | | 초년도보험료 | | 2차년도 이후 | | 합 계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 |
| FY2000 | 개인 | 114,739 | 89.1 | 92,618 | 6.7 | 191,363 | 12.8 | 398,721 | 26.1 |
| | 단체 | 72,999 | -25.6 | 17,113 | 5.1 | 27,706 | -25.2 | 117,817 | -22.2 |
| | 전체 | 163,180 | - 9.7 | 97,705 | 0.9 | 206,669 | 10.9 | 467,554 | 0.8 |
| FY2001 | 개인 | 30,495 | -73.4 | 109,520 | 18.3 | 237,784 | 24.3 | 377,799 | -5.2 |
| | 단체 | 49,945 | -31.6 | 19,078 | 11.5 | 26,821 | -3.2 | 95,844 | -18.7 |
| | 전체 | 80,440 | -57.2 | 128,598 | 17.2 | 264,605 | 20.8 | 473,643 | -8.3 |
| FY2002 | 개인 | 29,688 | -2.5 | 100,710 | -8.0 | 285,095 | 19.9 | 415,493 | 10.0 |
| | 단체 | 24,980 | -50.0 | 18,946 | -0.9 | 31,248 | 16.5 | 75,175 | -21.6 |
| | 전체 | 54,668 | -32.0 | 119,656 | -7.0 | 316,343 | 19.6 | 490,668 | 3.6 |
| FY2003 | 개인 | 53,625 | 80.6 | 91,438 | -9.2 | 302,098 | 6.0 | 447,161 | 7.6 |
| | 단체 | 10,758 | -56.9 | 8,476 | -55.3 | 37,530 | 20.1 | 56,764 | -24.5 |
| | 전체 | 64,383 | 17.8 | 99,913 | -16.5 | 339,629 | 7.4 | 503,925 | 2.7 |
| FY2004 | 개인 | 55,101 | 2.8 | 103,031 | 12.7 | 322,008 | 6.6 | 480,140 | 7.4 |
| | 단체 | 11,752 | 9.2 | 5,293 | -37.6 | 40,321 | 7.4 | 57,366 | 1.1 |
| | 전체 | 66,853 | 3.8 | 108,324 | 8.4 | 362,329 | 6.7 | 537,506 | 6.7 |
| 2005. 4~8 | 개인 | 21,741 | 10.9 | 48,129 | 16.4 | 142,828 | 9.6 | 212,698 | 11.2 |
| | 단체 | 6,477 | 164.7 | 1,332 | -8.9 | 9,535 | 8.2 | 17,344 | 36.3 |
| | 전체 | 28,218 | 28.0 | 49,461 | 15.6 | 152,363 | 9.5 | 230,042 | 12.8 |

주: 1)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.

2) 단체보험은 특별계정에 포함됨.

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.

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월보』, 각 월호.

1)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

- FY200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종목별 구성비는 사망보험이 48.9%, 생존보험 24.4%, 생사혼합보험 16.0%, 단체보험 10.7%인 것으로 나타남.
 -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구성비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, 기타 단체보험, 퇴직보험의 구성비는 하락세를 보임.
 - 사망보험의 증가는 저금리지속과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변액보험을 포함한 종신보험의 증가가 가속화된 데 기인함.
- 2005년 4~8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종목별 구성비는 사망보험과 생존보험, 생사혼합은 증가한 반면, 단체보험은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냄.
 - 동 기간 중 사망보험의 점유율은 전체의 49.0%, 생존보험은 24.6%, 생사혼합보험은 18.9%, 단체보험은 7.5%를 나타냄.
 - 하락 추세를 지속했던 생사혼합보험의 점유율 반등은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간접투자시장의 성장으로 크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<표 III-5>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

(단위 : %)

| 구분 | 생존 | 사망 | 생사혼합 | 개인계 | 퇴직 | 일반단체 | 단체계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
| FY2002 | 18.6 | 43.5 | 22.5 | 84.7 | 9.7 | 5.6 | 15.3 |
| FY2003 | 23.9 | 46.0 | 18.8 | 88.7 | 7.7 | 3.6 | 11.3 |
| FY2004 | 24.4 | 48.9 | 16.0 | 89.3 | 7.5 | 3.1 | 10.7 |
| 2005.4~8 | 24.6 | 49.0 | 18.9 | 92.5 | 5.0 | 2.6 | 7.5 |

<표 III-6>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4~8 | |
|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개 | 생존보험 | 108,661 | 74,955 | 91,424 | 120,375 | 131,368 | 56,528 |
| | | 11.1 | -31.0 | 22.0 | 31.7 | 9.1 | 10.6 |
| 인 | 사망보험 | 125,393 | 174,334 | 213,677 | 231,844 | 262,971 | 114,018 |
| | | 24.8 | 39.0 | 22.6 | 8.5 | 13.4 | 7.9 |
| 보 | 생사혼합 | 164,667 | 128,510 | 110,392 | 94,942 | 85,801 | 42,152 |
| | | 39.8 | -22.0 | -14.1 | -14.0 | -9.6 | 22.3 |
| 험 | 소 계 | 398,721 | 377,799 | 415,493 | 447,161 | 480,140 | 212,698 |
| | | 26.1 | -5.2 | 10.0 | 7.6 | 7.4 | 11.2 |
| 단 | 일반단체 | 67,985 | 38,112 | 27,393 | 18,013 | 16,891 | 5,942 |
| | | -32.6 | -43.9 | -28.1 | -34.2 | -6.2 | -16.4 |
| 체 | 퇴직보험 | 49,832 | 57,733 | 47,781 | 38,751 | 40,474 | 11,402 |
| | | -1.5 | 15.9 | -17.2 | -18.9 | 4.4 | 103.0 |
| 보 | 단체보험계 | 117,817 | 95,844 | 75,175 | 56,764 | 57,366 | 17,344 |
| | | -22.2 | -18.7 | -21.6 | -24.5 | 1.1 | 36.3 |
| 험 | 합계 | 516,538 | 473,643 | 490,668 | 503,925 | 537,506 | 230,042 |
| | | 10.5 | -8.3 | 3.6 | 2.7 | 6.7 | 12.8 |

주: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.

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.

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월보』, 각 월호.

- FY2004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7.4% 증가한 48조 140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1.1% 증가한 5조 7,366억원을 기록함.

- 사망보험은 전년 대비 13.4% 증가한 26조 2,971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어 성장세를 회복함.

- 생존보험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9.1% 증가한 13조 1,368억원을 기록하였으나 FY2002 22.0%, FY2003 31.7%의 높은 증가율에 비교할 경

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임.

-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경쟁력 상실에 따른 지속적인 감소세가 FY2001 이후로 계속되는 가운데 FY2004에 전년 대비 9.6% 감소한 8조 5,801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함.
 -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퇴직보험의 수요 증가와 일반단체보험 감소 추세가 악화된 데 힘입어 전년 대비 1.1%p 증가한 5조 7,36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마이너스 성장세를 반전하는 계기를 마련함.
- 2005년 4~8월 중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1.2% 증가한 21조 2,698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36.3%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1조 7,344억원을 기록함.
- 변액종신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의 성장세는 감소해 7.9%의 성장을 보인 반면 생존보험은 변액연금의 성장으로 10.6%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음.
 - 생사혼합보험의 경우에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간접투자시장의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2.3%의 성장을 기록함.
 -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FY2004 하반기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퇴직보험이 크게 증가(103%)하여 일반단체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36.3% 높은 성장을 기록함.

2)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

- FY2004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, 상위사의 비중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함.

-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03보다 3.5%p 감소한 68.5%를 기록하여 70%를 하회하였음.
 - 일부 국내 중소형사의 경영실적 반전과 방카슈랑스 전문보험사의 선전, 그리고 외국사의 적극적인 판매전략으로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FY2003보다 각각 0.6%p, 2.9%p 상승한 15.0%, 16.5%로 나타남.
- 2005 4~8월 중 시장점유율은 상위사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외국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- 상위 3사의 점유율은 외국사의 시장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2.8%p가 감소한 66.4%를 기록함.
 - 외국사는 방카슈랑스 등의 신채널 중심의 전문 보험사들의 선전과 일부 우량 외국사의 견실한 성장으로 점유율 증가가 지속됨.

<표 III-7>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

(단위 : %)

| 연 도 | 상위 3사 | 국내 중소형사 | 외국사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
| FY2000 | 80.9 | 13.4 | 5.7 |
| FY2001 | 78.0 | 14.0 | 8.0 |
| FY2002 | 75.8 | 13.7 | 10.5 |
| FY2003 | 72.0 | 14.4 | 13.6 |
| FY2004 | 68.5 | 15.0 | 16.5 |
| 2005. 4~8 | 66.4 | 15.3 | 18.3 |

주: 외국사는 지분인수 기준일로 구분하였음. 2005년 8월말 기준 현재 알리안츠, 푸르덴셜, ING, 라이나, AIG, 메트라이프, 하나, 뉴욕, PCA, SH&C가 포함됨.

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.
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월보』, 각 월호.

나. 계약현황

1) 신계약

- FY2004 신계약액은 사망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신계약금액 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5.6%가 증가한 327조 9,541억원을 기록함.
 - 전통적 생존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보험의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, 또한 일부 전통적 생존보험의 수요도 변액연금보험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생존보험의 신계약액은 전년 대비 11.0% 증가한 25조 9,179억원을 보임.
 - 사망보험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 대비 1.1% 감소한 251조 532억원을 기록하였으나 그 감소 추세는 둔화됨.
 - 생사혼합보험의 신계약액은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수요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44.1% 증가한 22조 7,691억원을 기록함.
 - 단체보험의 신계약액은 퇴직보험의 수요 반등과 일반단체보험의 신계약액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60.0% 증가한 28조 2,139억원을 기록함.
- 2005년 8월말까지의 생명보험 신계약액을 보면 생사혼합보험과 단체보험의 큰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과 생존보험 감소의 상쇄로 인하여 생명보험 전체 신계약액은 전년동기 대비 0.2% 감소하였음.
 - 장기저축성상품인 연금상품이 저금리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개인연금보험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생존보험의 신계약액은 전년동기 대비 2.2% 감소함.

- 주식시장의 성장이 지속되어 시중자금이 펀드에 집중됨에 따라 변액 유니버셜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퇴직보험의 수요가 확대되어 생사혼합보험과 단체보험의 신계약액이 전년동기 대비 107.0%, 162.1% 각각 증가함.
- 사망보험 신계약액은 종신보험의 성장둔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19.0% 감소함.
- 사망보험의 신계약이 개인보험에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통한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으로 점유율이 감소함(사망보험 점유율 2004년 8월말 85.5% → 2005년 8월말 77.7%, 생사혼합보험 점유율 2004년 8월말 5.2% → 2005년 8월말 12.0%).

<표 III-8> 생명보험 신계약액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생존보험 | 사망보험 | 생사혼합 | 단체보험 | 합 계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FY2000 | 383,102 | 1,813,111 | 559,759 | 269,272 | 3,025,244 |
| | 27.5 | 13.2 | 42.1 | -25.4 | 13.9 |
| FY2001 | 255,110 | 2,901,231 | 224,250 | 208,931 | 3,589,522 |
| | -33.4 | 60.0 | -59.9 | -22.4 | 18.7 |
| FY2002 | 318,493 | 2,597,024 | 167,007 | 190,352 | 3,272,876 |
| | 24.8 | -10.5 | -25.5 | -8.9 | -8.8 |
| FY2003 | 233,475 | 2,537,848 | 157,970 | 176,368 | 3,105,661 |
| | -26.7 | -2.3 | -5.4 | -7.3 | -5.1 |
| FY2004 | 259,179 | 2,510,532 | 227,691 | 282,139 | 3,279,541 |
| | 11.0 | -1.1 | 44.1 | 60.0 | 5.6 |
| 2005.4~8 | 110,096 | 834,521 | 128,981 | 208,691 | 1,282,289 |
| | -2.2 | -19.0 | 107.0 | 162.1 | -0.2 |

주: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.
 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.
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월보』, 각 월호.

2) 보유계약

- FY2004 생명보험 보유계약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8.9% 증가한 1,308조 4,355억원을 기록하였으며, 2005년 8월말에는 전년동기 대비 8.2% 증가한 1,345조 8,416억원을 기록함.
- 2005년 8월말 현재 보유계약액 기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보유계약액 비중은 신계약의 감소와 단체보험 보유계약의 비중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0.7%p, 0.5%p 감소한 11.6%, 76.9%를 각각 차지함.
 - 생사혼합보험의 보유계약액 비중은 생사혼합보험 신계약액의 큰 폭 증가에도(107.0%) 불구하고 단체보험 보유계약의 비중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0.1%p 소폭 증가한 5.8%를 나타냄.
 - 단체보험의 보유계약액 비중은 단체보험 신계약의 큰 폭 증가에 (162.1%)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.1%p 증가한 5.7%를 차지함.

<표 III-9> 생명보험 보유계약액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| 생존보험 | 사망보험 | 생사혼합 | 단체보험 | 합 계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FY2000 | 금 액 | 1,535,770 | 5,125,671 | 1,034,540 | 592,352 | 8,288,333 |
| | 증가율 | 4.5 | 23.2 | 33.4 | -10.0 | 17.3 |
| | 비 중 | 18.5 | 61.8 | 12.5 | 7.1 | 100.0 |
| FY2001 | 금 액 | 1,538,750 | 7,067,857 | 970,612 | 579,688 | 10,156,906 |
| | 증가율 | 0.2 | 37.9 | -6.2 | -2.1 | 22.5 |
| | 비 중 | 15.1 | 69.6 | 9.6 | 5.7 | 100.0 |
| FY2002 | 금 액 | 1,590,804 | 8,305,323 | 862,663 | 578,618 | 11,337,408 |
| | 증가율 | 3.4 | 17.5 | -11.1 | -0.2 | 11.6 |
| | 비 중 | 14.0 | 73.3 | 7.6 | 5.1 | 100.0 |
| FY2003 | 금 액 | 1,513,500 | 9,211,881 | 738,275 | 548,680 | 12,012,337 |
| | 증가율 | -4.9 | 10.9 | -14.4 | -5.2 | 6.0 |
| | 비 중 | 12.6 | 76.7 | 6.1 | 4.6 | 100.0 |
| FY2004 | 금 액 | 1,545,966 | 10,126,018 | 738,074 | 674,298 | 13,084,355 |
| | 증가율 | 2.1 | 9.9 | -0.03 | 22.9 | 8.9 |
| | 비 중 | 11.8 | 77.4 | 5.6 | 5.2 | 100.0 |
| 2005. 4~8 | 금 액 | 1,572,203 | 10,343,906 | 779,644 | 762,662 | 13,458,416 |
| | 증가율 | 2.5 | 7.5 | 10.5 | 32.5 | 8.2 |
| | 비 중 | 11.6 | 76.9 | 5.8 | 5.7 | 100.0 |

주: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.
 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.
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월보』, 각 월호.

다. 수지현황

1) 지급보험금

- FY2004 보험금은 생존보험의 경우 전년 대비 35.7% 증가하였으나 생사 혼합보험(-21.1%)과 퇴직보험(-13.5%)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.6% 감소한 8조 1,644억원을 기록함.
 - 사망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은 전년 대비 각각 3.6%, 1.1% 증가한 1조 2,712억원과 5,233억원을 기록함.
- 2005년 4~8월 중 보험금은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 대비 33.1%가 증가하여 4조 26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됨.
 - 동 기간 중 개인보험 보험금은 생존보험, 사망보험, 생사혼합보험이 각각 34.8%, 16.3%, 54% 증가함에 따라 42.9% 증가한 2조 6,331억원을 기록함.
 - 단체보험 보험금은 퇴직보험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17.8% 증가한 1조 3,936억원을 기록함.
- FY2004 환급금은 개인보험이 10.2% 증가한 반면 단체보험은 31.8% 감소하여 전년 대비 4.8%의 증가를 기록함.
 - 2005년 4~8월 중 환급금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2.3%, 37.6%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.6% 증가함.

<표 III-10>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보험금 | | 환급금 | | 배당금 | | 합 계 | |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금 액 | 증가율 | 금 액 | 증가율 | 금 액 | 증가율 | 금 액 | 증가율 | |
| FY2000 | 개인 | 52,470 | 67.1 | 167,350 | -6.8 | 4,731 | -3.3 | 224,551 | 4.0 |
| | 단체 | 42,353 | -6.7 | 124,202 | 3.0 | 1,364 | 20.3 | 167,919 | 0.4 |
| | 전체 | 94,823 | 23.5 | 291,551 | -2.9 | 6,096 | 1.1 | 392,471 | 2.5 |
| FY2001 | 개인 | 43,656 | -16.8 | 178,787 | 6.8 | 4,854 | 2.6 | 227,297 | 1.2 |
| | 단체 | 31,646 | -25.3 | 83,914 | -32.4 | 671 | -50.8 | 116,231 | -30.8 |
| | 전체 | 75,302 | -20.6 | 262,701 | -9.9 | 5,525 | -9.4 | 343,528 | -12.5 |
| FY2002 | 개인 | 43,219 | -1.0 | 165,246 | -7.6 | 3,732 | -23.1 | 212,197 | -6.6 |
| | 단체 | 26,309 | -16.9 | 55,404 | -34.0 | 270 | -59.7 | 81,983 | -29.5 |
| | 전체 | 69,528 | -7.7 | 220,650 | -16.0 | 4,002 | -27.6 | 294,180 | -14.4 |
| FY2003 | 개인 | 60,170 | 39.2 | 190,849 | 15.5 | 4,535 | 21.5 | 255,554 | 20.4 |
| | 단체 | 33,257 | 26.4 | 28,270 | -49.0 | 313 | 16.0 | 61,840 | -24.6 |
| | 전체 | 93,427 | 34.4 | 219,119 | -0.7 | 4,848 | 21.1 | 317,394 | 7.9 |
| FY2004 | 개인 | 52,108 | -13.4 | 210,369 | 10.2 | 4,590 | 1.2 | 267,067 | 4.5 |
| | 단체 | 29,536 | -11.2 | 19,277 | -31.8 | 346 | 10.5 | 49,159 | -20.5 |
| | 전체 | 81,644 | -12.6 | 229,646 | 4.8 | 4,936 | 1.8 | 316,226 | -0.4 |
| 2005. 4~8 | 개인 | 26,331 | 42.9 | 85,176 | 2.3 | 1,665 | -13.9 | 113,173 | 9.2 |
| | 단체 | 13,936 | 17.8 | 8,105 | 37.6 | 124 | -33.3 | 22,166 | 23.8 |
| | 전체 | 40,268 | 33.1 | 93,281 | 4.6 | 1,790 | -15.6 | 135,339 | 11.4 |

주: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.

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.

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월보』, 각 월호.

2) 수지차

- FY2004 당기순이익은 투자영업이익과 보험영업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32.6% 증가한 2조 1,051억원을 시현함.
 - 보험영업이익은 수입보험료의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수익의 증가와 사업비율의 상승으로 인한 보험영업비용의 증가효과가 상쇄하여 소폭의 증가를 나타냄.
 - 투자영업이익은 채권금리의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채권매각 이익과 평가이익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.6% 증가한 10조 7,412억원을 기록함.
 - 법인세와 준비금전입액의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원인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지의 경우 그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였고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은 증가함.
- 2005년 8월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4조 1,943억원 감소한 6,805억원을 기록함.
 - 동 기간 중 보험영업수지는 보험금과 신계약비상각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보험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22.1% 감소한 3조 8,459를 기록함.
 - 동 기간 중 투자영업수지는 투자영업비용은 투자영업수익이 악화되고 투자영업비용도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.7% 감소한 3조 9,897억원을 기록함.

<표 III-11> 생명보험 수지차 추이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보험수지차 | 총수지차 | 당기순이익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FY2000 | 40,734 | 80,839 | -6,085 |
| FY2001 | 59,267 | 121,079 | 17,228 |
| FY2002 | 120,581 | 195,920 | 28,320 |
| FY2003 | 98,356 | 171,078 | 15,874 |
| FY2004 | 101,395 | 194,232 | 21,051 |
| 2005.4~8 | 38,459 | 80,930 | 6,805 |

주: 1) 보험수지차는 특별계정을 포함함.

2) 보험수지차 = 수입보험료 - 지급보험금 - 사업비(신계약·유지·수금비)

3) 총수지차 및 당기순이익은 일반계정임.

4) 총수지차 = 보험손익 + 투자손익 + 기타손익

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동향』, 각 월호.

생명보험협회, 『월간생명보험』, 2004. 10.

라. 자산운용 현황

1) 총자산 규모

○ FY2004 생명보험회사 총자산 규모는 투자영업이익과 보험영업이익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.9% 성장한 211조 6,098억원을 기록함.

- 2005년 8월말 총자산 규모는 투자영업수지와 보험영업수지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12.7% 증가한 221조 2,238억원을 기록함.

<표 III-12> 생명보험 자산운용 실적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총 자 산 | 운용자산* | 자산운용수익* | 자산운용수익률(%) |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| | | | 총 자 산 | 운용자산 |
| FY2000 | 1,207,300 | 998,133 | 83,152 | 8.5 | 8.9 |
| FY2001 | 1,430,340 | 1,164,981 | 92,351 | 8.5 | 8.9 |
| FY2002 | 1,642,225 | 1,326,366 | 105,700 | 8.5 | 8.9 |
| FY2003 | 1,873,615 | 1,520,232 | 118,707 | 8.3 | 8.7 |
| FY2004 | 2,116,098 | 1,685,303 | 129,822 | 8.0 | 8.4 |
| 2005.4-8 | 2,212,238 | 1,763,602 | 49,225 | 6.6 | 7.0 |

주: * 표시는 일반계정의 실적임.
 자료: 생명보험협회, 『월간생명보험』, 각 월호.

- FY2004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지속된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저금리 지속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.3%p 감소한 8.4%를 기록함.
 - 2005년 4~8월 운용자산 수익률은 전년에 이어 저금리의 영향으로 인한 채권운용수익률 하락과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.4%p 감소한 7.0%를 기록함.

2) 자산운용 포트폴리오

- FY2004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추구하면서 채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장단기 운용자산의 비중이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냈음.
- 2005년 8월말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유가증권이 총자산의 53.6%로 전년동기 대비 1.1%p 증가하였으며, 대출채권은 20.5%로 2.6%p 감소하였음.

- 이는 보험회사가 유가증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투자를 확대하고
가계부채 심화 등 신용불안 확대의 영향으로 대출채권의 보유 비중을
축소했기 때문임.

<표 III-13> 생명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

(단위 : 십억원, %)

| 구 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8 |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운용 자산 | 현·예금 | 3,701 | 2,684 | 3,256 | 3,180 | 3,012 | 3,290 |
| | | 3.1 | 1.9 | 2.0 | 1.7 | 1.4 | 1.5 |
| | 유가증권 | 48,271 | 63,865 | 76,797 | 94,665 | 111,268 | 118,513 |
| | | 40.0 | 44.6 | 46.8 | 50.5 | 52.6 | 53.6 |
| | - 채권 | 24,937 | 36,356 | 48,906 | 57,538 | 71,984 | 76,058 |
| | | 20.7 | 25.4 | 29.8 | 30.7 | 34.0 | 34.4 |
| | - 주식 | 5,674 | 8,238 | 5,496 | 8,893 | 9,394 | 10,346 |
| | | 4.7 | 5.8 | 3.3 | 9.4 | 4.4 | 4.7 |
| | - 기타 | 17,660 | 19,271 | 22,396 | 28,234 | 29,890 | 32,109 |
| | | 14.6 | 13.5 | 13.6 | 10.4 | 14.1 | 14.5 |
| 대출 | 38,342 | 40,690 | 43,544 | 45,125 | 45,306 | 45,430 | |
| | 31.8 | 28.5 | 26.5 | 24.1 | 21.4 | 20.5 | |
| 부동산 | 9,500 | 9,258 | 9,039 | 9,052 | 8,944 | 9,128 | |
| | 7.9 | 6.5 | 5.5 | 4.8 | 4.2 | 4.1 | |
| 소계 | 99,813 | 116,498 | 132,637 | 152,023 | 168,530 | 176,360 | |
| | 82.7 | 81.5 | 80.8 | 81.1 | 79.6 | 79.7 | |
| 비운용자산 | 12,846 | 15,782 | 18,458 | 20,574 | 24,426 | 24,079 | |
| | 10.6 | 11.0 | 11.2 | 11.0 | 11.5 | 10.9 | |
| 특별계정 | 8,071 | 10,754 | 13,128 | 14,764 | 18,654 | 20,784 | |
| | 6.7 | 7.5 | 8.0 | 7.9 | 8.8 | 9.4 | |
| 총 자산 | 120,730 | 143,034 | 164,223 | 187,362 | 211,610 | 221,224 | |
|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|

주: 1) 하단의 수치는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.

2) 현·예금에는 신탁, 예치금 등을 포함, 기타유가증권에는 수익증권, 출
자금, 해외유가증권 등이 포함됨.

자료: 생명보험협회, 『월간생명보험』, 각 월호.

마. 경영효율

- FY2004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증가와 지급보험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0.6%p 감소된 59.7%를 기록함.
 - 2005년 8월말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의 높은 지급보험금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3.2%p 증가된 60.1%를 기록함.
- 실효해약률은 FY2004 효력상실해약액의 감소로 인하여 14.2%를 기록하여 FY2001 수준으로 낮아짐.
 - 2005년 8월말 보험회사들의 실효해약률은 영업효율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1.6%p 감소한 5.3%를 기록함.
- 2005년 8월말 현재 특별계정을 제외한 총자산에서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자산운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0.5%p 감소한 88.0%를 기록함.
- FY2004 생명보험의 계약유지율은 13회차의 경우 실효해약률 감소로 전년 대비 5.5%p 상승한 79.1%를 기록함.
 - FY2004 보험회사의 완전판매 노력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개선됨.
 - 25회차 계약유지율은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FY2002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04는 전년 대비 4.2%p 감소한 58.4%를 기록함.
- 보험설계사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인 13월차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우량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노력으로 전년 대비 2.5%p 증가한 33.7%로 나타남.

-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으로 생보사는 보험설계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방카슈랑스 비중이 증가함.

<표 III-14> 생명보험 경영효율 주요 지표

(단위 : %)

| 구 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4~8 |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|
| 보험금지급률 | 75.9 | 72.5 | 59.1 | 61.3 | 59.7 | 60.1 | |
| 실효해약률 | 16.0 | 14.1 | 14.8 | 16.1 | 14.2 | 5.3 | |
| 자산운용률* | 88.6 | 88.1 | 87.8 | 88.1 | 87.3 | 88.0 | |
| 유지율 | 13회차 | 71.4 | 79.0 | 79.3 | 73.6 | 79.1 | - |
| | 25회차 | 54.0 | 59.6 | 65.7 | 62.6 | 58.4 | - |
| 설계사정착률(13) | 22.4 | 28.8 | 31.2 | 31.2 | 33.7 | - | |

주: 1) 보험금지급률 = 지급보험금/수입보험료

2) 실효해약률 = 효력상실해약액/(연초보유계약액+신계약액)

3) 유지율 = 유지계약액/신계약액

4) *는 일반계정의 수치임.

자료: 생명보험협회, 『월간생명보험』, 각 월호.

금융감독원, 보도자료.

바. 판매채널

- FY2004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방카슈랑스 채널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비중이 증가한 반면 보험설계사 채널은 감소세를 이어감.
 - 이는 일시납상품을 중심으로 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납입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월납 중심의 다른 채널과의 수평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음.
 - 보험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방카슈랑스 채널의 적극적 판매전략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2.7%p 감소한 37.3%를 기록하면서 비중 감소세를 이어감.

- 또한 보험대리점의 경우 개인대리점이 퇴조하고 대형 법인대리점의 증가세가 이어짐.

<표 III-15>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

(단위 : %)

| 구 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4~8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회사직급 | 34.2 | 55.7 | 46.0 | 9.9 | 7.4 | 5.0 |
| 보험설계사 | 62.9 | 41.6 | 45.8 | 40.0 | 37.3 | 36.0 |
| 대리점 | 2.9 | 2.6 | 7.0 | 7.4 | 8.2 | 8.8 |
| 중개인 | - | - | - | 0.0 | - | - |
| T/M | - | - | - | 2.6 | - | - |
| C/M | - | - | - | 0.1 | - | - |
| 방카슈랑스 | - | - | - | 39.7 | 46.7 | 50.2 |
| 기타 | 0.0 | 0.1 | 1.3 | 0.3 | 0.4 | 0.0 |

자료: 생명보험협회, 『월간생명보험』, 각 월호.

- 2005. 8월말 현재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형태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방카슈랑스 채널이 동기간 대비 8%p 증가한 50.2%를 기록한 반면 회사직급과 설계사에 의한 판매 비중은 3.8%p, 5.6%p 감소한 5.0%, 36.0%를 각각 나타냄.
 - 보험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방카슈랑스 확대에 의한 영향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설계사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짐.
 - 보험회사의 우량 설계사 조직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방카슈랑스 등의 신채널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- FY2004에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강세가 이어지고 우량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함에 따라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의 수, 대리점의 수의 감소 추세가 이어짐.

- 전통 채널 중심의 구조조정 노력과 완전판매 노력 등과 같은 영업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인하여 설계사 정착율과 계약유지율은 상승하였음.
- FY2004 생명보험의 모집조직 규모는 임직원, 보험설계사, 대리점 등 전 모집조직이 감소하였음.
 - 대형사의 경우 대리점수와 임직원수 모두를 감소시켰으며 외국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수는 증가시키고 대리점수는 감소시킴.
 - 중소형사는 임직원수를 줄이면서 대리점수를 증가시킴.

<표 III-16> 생명보험 모집조직 추이

(단위 : 명, 개)

| 구 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4~8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회사직급 | 31,851 | 28,572 | 26,726 | 26,172 | 25,412 | 25,281 |
| | -10.7 | -10.3 | -6.5 | -2.1 | -2.9 | -3.8 |
| 보험설계사 | 214,793 | 171,505 | 151,064 | 143,498 | 136,947 | 131,053 |
| | -11.0 | -20.2 | -11.9 | -5.0 | -4.6 | -9.8 |
| 대리점 | 6,017 | 7,001 | 7,267 | 7,211 | 6,672 | 6,761 |
| | -22.8 | 16.4 | 3.8 | -0.8 | -7.5 | -5.2 |

주: 하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.
 자료: 생명보험협회, 『월간생명보험』, 각 월호.

3. 손해보험

가. 원수보험료

- FY200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견조한 성장과 장기손해보험의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8.6%의 성장률을 나타냄.
 -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및 온라인 시장 확대 등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인상 효과로 인하여 7.0% 성장하였음.
 - 장기손해보험은 12.3%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기여하였음.
 - 장기손해보험은 질병 및 상해보험에 대한 꾸준한 수요 확대와 더불어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로 성장함.
 - 반면,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.
 - 특종보험은 종합보험, 상해보험 등에서 높은 성장을 나타낸 반면, 화재보험, 해상보험, 보증보험 등은 요율인하, 경기불황 등으로 전년 대비 성장이 감소하였음.
- 2005년 4~8월에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등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에서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원수보험료 10조 2,627억원으로 10%에 육박하는 성장을 보임.
 -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세 지

속 및 온라인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으로 1.9% 성장에 그침.

-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부문과 저축성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, 전체 손해보험에서의 점유율이 전년동기 대비 2.7%p 증가한 43.4%에 이르고 있음.
-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특종보험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화재보험, 해상보험 등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음.

<표 III-17>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4~8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국내 | GDP(10억원) ¹⁾ | 578,665 | 622,123 | 684,264 | 724,675 | 778,445 | 382,260 |
| 경제 | 증 가 율 | 9.3 | 7.5 | 10.0 | 5.9 | 7.4 | 3.2 |
| 손보 | 보 험 료 ²⁾ | 168,617 | 186,959 | 206,129 | 213,782 | 232,189 | 102,627 |
| 산업 | 증 가 율 | 13.8 | 10.9 | 10.3 | 3.7 | 8.6 | 9.8 |

주: 1) CY 기준(2000년 기준 경상가격)이며, 2003.4~8은 2/4분기 누적수치임.

2) FY1999부터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임.

3) 부수사업이 포함된 실적임.

4)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.

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.
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1) 종목별 원수보험료

-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,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성장 추세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.
 - 즉, 장기손해보험은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전체 손해보험에서의 점유율이 증가추세인 반면,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음.
 - 2005년 4~8월간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은 43.4%, 자동차보험은 35.2%로 나타남.

- 일반손해보험에서는 특종보험이 성장률, 점유율 측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화재보험, 해상보험, 보증보험 시장은 정체되어 있음.

<표 III-18>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FY2004 | | | 2005. 4 ~ 8 | | |
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구성비 | 보험료 | 증가율 | 구성비 |
| 화 재 | 2,937 | -7.1 | 1.3 | 1,298 | 5.7 | 1.3 |
| 해 상 | 5,071 | -3.3 | 2.2 | 2,406 | 7.0 | 2.3 |
| 자 동 차 | 85,208 | 7.0 | 36.7 | 36,121 | 1.9 | 35.2 |
| 보 증 | 9,018 | -4.3 | 3.9 | 3,848 | -0.5 | 3.7 |
| 특 종* | 21,181 | 13.0 | 9.1 | 9,902 | 13.5 | 9.6 |
| 장 기 | 96,353 | 12.3 | 41.5 | 44,576 | 15.8 | 43.4 |
| 개인연금 | 6,799 | -1.1 | 2.9 | 2,824 | -1.7 | 2.8 |
| 퇴직보험 | 5,622 | 13.6 | 2.4 | 1,651 | 78.5 | 1.6 |
| 합 계 | 232,189 | 8.6 | 100.0 | 102,627 | 9.4 | 100.0 |

주: 1) *는 기술, 책임, 상해, 종합, 기타 특종보험, 권원보험의 합계임.
 2) 부수사업이 제외된 실적임.
 3)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.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가) 자동차보험

- FY2004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8조 5,208억원으로 전년 대비 7.0%의 성장을 나타냄.
 - 자동차보험 시장은 최근 4년간 저성장 추세였으나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및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, 2004년 11월 기본보험료 인상 등에 기인하여 다시 상승추세를 보임.
- 그러나, 2005년 4~8월 자동차보험은 보상한도 확대 및 대물보험 가입

의무화 효과가 상쇄되고,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지속 및 온라인 시장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1.9%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.

나) 장기손해보험

- FY2004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통합형보험, CI보험 등 신상품 판매 등 상해 및 질병부문의 수요 확대,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 호조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.3% 성장한 9조 6,353억원을 나타냄.
 -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, 상해부문 20.7%, 질병 15.5%, 저축성 18.7%를 나타내었으며, 특히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상해 88.0%, 저축성 120.4% 급증하였음.
 - 상해부문은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통합형보험 성장에 기인하여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저축/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음.
 - 반면, 운전자보험의 원수보험료는 3.7% 성장하고 재물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 4.5% 성장하는 등 정체된 수준을 나타냈음.
- 2005년 4~8월에도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는 지속되어 전년동기 대비 15.8% 성장한 4조 4,576억원을 나타냄.
 - FY2004와 마찬가지로 상해 및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, 재물 및 운전자보험은 저성장세를 지속함.
- FY2004 개인연금보험의 원수보험료는 6,799억원으로 -1.1%의 성장률을 나타내었고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은 2.9%로 감소하는 추세임.
 - 2005년 4~8월 개인연금보험은 2,824억원으로 -1.7% 성장하여 FY2004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, 점유율 또한 하락세를 나타냄.

다) 보증보험

-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FY2004 9,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-4.3% 성장하였으며, 2005년 4~8월의 경우에도 성장률 -0.5%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.
-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자제되고 카드사 부실이 처리되면서 그 동안 급성장했던 신용카드 신용보험 시장 성장이 급감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.
- 이 밖에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 지속에 따라 소액대출보증보험 등의 성장이 감소하였으나, 보증보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행보증보험은 견조한 성장을 나타내었음.

라) 일반손해보험

- 화재보험은 FY2004 -7.1%의 성장률, 2,937억원의 원수보험료를 나타내었으며, 화재보험 수요가 종합보험으로 이전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가속화되었음.
- 2005년 4~8월에는 2005년 5월 보험료 인상, 개별할인할증(SRP) 재정보 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.7% 성장한 1,298억원을 기록함.
- FY2004 해상보험은 손해율 안정에 따른 보험료 인하, 항공보험의 국내 부보율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-3.3% 성장한 5,071억원을 나타냄.
- 2005년 4~8월에 들어서는 선박보험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 대비 7.0% 성장하는 등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됨.
- 특종보험의 경우, FY2004 종합보험, 상해보험 등 대부분 종목에서의 성장세에 기인하여 13.0% 성장한 2조 1,181억원을 기록함.

- 종목별로는 특종보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종합보험의 경우 5.9% 성장하였으며, 기술보험 31.1%, 상해보험 27.1%, 책임보험 8.4%의 성장률을 나타냄.
- 이와 같은 성장세는 2005년에도 지속되어 2005년 4~8월 13.5%의 성장률로 9,902억원을 시현함.

2)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

- FY2004 손해보험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1.1%로 전년 대비 0.5%p 증가하였음.
 - 이는 대형 보험회사 위주로 장기손해보험의 판매가 증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전업사의 시장 확대를 감안할 때 일반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.
 - 2005년에도 대형사 및 중소형사간의 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어 2005년 8월말 현재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1.6%로 증가하였음.
- 한편,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04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8월 3.8%까지 축소되었는데, 이는 보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.
-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에 기인하여 FY2004 1.2%로 전년 대비 0.5%p 증가하였으며, 2005년 8월에는 1.3%를 나타냄.

<표 III-19>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

(단위 : %)

| 연도 | 상위 4사 | 중소형사 | 일반사계 | 전업사 | 외국사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FY2000 | 68.0 | 27.9 | 95.9 | 3.7 | 0.4 |
| FY2001 | 68.2 | 27.3 | 95.5 | 3.9 | 0.6 |
| FY2002 | 70.0 | 24.6 | 94.6 | 4.7 | 0.7 |
| FY2003 | 70.6 | 24.6 | 94.6 | 4.7 | 0.7 |
| FY2004 | 71.1 | 23.1 | 94.8 | 4.0 | 1.2 |
| 2005. 4~8 | 71.6 | 23.3 | 94.9 | 3.8 | 1.3 |

주: 1) 일반사계에는 교보자동차, 교원나라,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,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, 외국사는 AIG, ACE, 페더럴, 로얄,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 등 5개사임.
 2) 2002년의 경우, 알리안츠손보,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.
 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
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. 수지상황

1) 수지차

- FY2004 전체 손해보험회사는 1조 6,044억원의 총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음.
 - FY2004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은 9,616억원, 보증보험회사는 5,134억원을 나타내면서 전년도 이익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음.
- 일반 손해보험회사는 FY2000 이후 보험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, 투자영업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실정임.
 - FY2004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지는 7,519억원 적자를 나타

내었으며, 투자영업 부문에서는 전년도 보다 2,868억원 증가한 1조 7,136억원 흑자 규모를 기록함.

- 2005년 4~8월에도 보험영업이익은 1,364억 적자를 시현한 반면, 투자영업이익은 6,477억원을 나타내었음.

- 한편, 보증보험회사는 투자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보험영업이익에서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.

<표 III-20> 손해보험 수지차 추이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보험영업이익 | | | 투자영업이익 | | | 총영업이익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| 국내 11개사 | 보증 보험사 | 전사 | 국내 11개사 | 보증 보험사 | 전사 | 국내 11개사 | 보증 보험사 | 전사 |
| FY2000 | -12,628 | 550 | -12,174 | 7,091 | 345 | 7,826 | -5,537 | 895 | -4,347 |
| FY2001 | -5,967 | -6,920 | -13,044 | 15,396 | 1,099 | 17,128 | 9,429 | -5,819 | 4,084 |
| FY2002 | -4,090 | 3,859 | 210 | 11,127 | -2,828 | 8,860 | 7,038 | 1,030 | 9,057 |
| FY2003 | -8,233 | 2,484 | -5,953 | 14,268 | -66 | 14,951 | 6,036 | 2,417 | 8,998 |
| FY2004 | -7,519 | 3,575 | -3,414 | 17,136 | 1,558 | 19,451 | 9,616 | 5,134 | 16,044 |
| 2005. 4-8 | -1,364 | 1,781 | 1,005 | 6,477 | 4,645 | 7,270 | 5,112 | 2,245 | 8,275 |

주: 1) 보험영업이익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증가를 반영한 수치이며, 전사 실적에는 재보 및 외국사 실적이 포함되었음.

2) 교원나라와 다음다이렉트 보험의 실적은 제외됨.

자료: 대한손해보험협회, 『손해보험』, 2005. 9.

2) 당기순이익

- FY2004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1,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.2% 증가하였으며, FY2001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.

- 이는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한 보험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 규모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임.

- FY2004 손해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은 16조 6,0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.8%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, 원수보험료 성장률 8.6%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.
- 2005년 4~8월에는 자동차보험 사고율 증가,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증가 등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 대비 8.7%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.
- FY2004 사업비는 4조 7,884억원이 지출되어 전년 대비 1.4%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음.

<표 III-21> 손해보험 발생손해액, 사업비, 당기순이익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4~8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발생손해액 | 123,027 | 131,685 | 134,670 | 155,539 | 166,068 | 70,657 |
| | 31.9 | 7.0 | 2.3 | 15.5 | 6.8 | 8.7 |
| 사 업 비 | 37,805 | 42,400 | 47,032 | 47,203 | 47,884 | 20,179 |
| | 5.8 | 12.2 | 10.9 | 0.4 | 1.4 | 8.3 |
| 당기순이익 | -8,166 | 2,183 | 3,249 | 5,635 | 11,394 | 5,849 |

주: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.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다. 총자산

1) 총자산 현황

- FY2004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43조 4,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.0% 증가하였으며, 2005년 8월 현재 45조 52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.0% 증가함.

- 이와 같이 10%를 상회하는 자산 증가율은 최근 장기손해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준비금 적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.

<표 III-22> 손해보험 총자산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8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총자산 | 280,490 | 327,267 | 353,683 | 388,229 | 434,720 | 450,522 |
| | 6.0 | 16.7 | 8.1 | 9.8 | 12.0 | 12.0 |

주: 하단의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.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2) 자산효율

- FY2004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률은 86.1%로 전년 대비 0.3%p 감소하였으며, 2005년 8월에는 86.0%로 나타남.
 - 회사 그룹별로 보면, 대형사의 자산운용률은 89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중소형사는 83.7%, 외국사는 76.3%로 전년도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.
- 총자산수익률은 FY2004 6.3%로 전년 대비 0.1%p 감소하였고, 2005년 4~8월에는 5.1%로 축소되었음.
 - 이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채권투자환경 악화와 FY2004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에 기인하는 것임.
 - 또한, 해외투자에 따른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매입한 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대폭 축소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- 운용자산수익률은 FY2004 7.4%로 전년 대비 0.2%p 감소하였으며, 2005년 4~8월에는 6.1%를 나타내었음.

<표 III-23> 손해보험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수익률 추이

(단위 : %)

| 구 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4~8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자 산 운 용 율 ¹⁾ | 80.7 | 84.5 | 85.3 | 86.4 | 86.1 | 86.0 | |
| 수익률 | 총자산 | 6.6 | 7.8 | 6.4 | 6.4 | 6.3 | 5.1 |
| | 운용자산 | 8.4 | 9.5 | 7.8 | 7.6 | 7.4 | 6.1 |

주: 1) 자산운용율은 퇴직보험이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.

2) 2002년의 경우, 알리안츠손보,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.

자료: 금융감독원, 『금융통계월보』, 각 연호.

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3) 자산운용 포트폴리오

- FY2004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53.4%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,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 - 최근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로 안정적인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중시함에 따라 채권 투자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즉, 채권 비중이 FY2004 34.3%로 전년 대비 2.2%p 증가하였고, 2005년 8월 현재 36.5%로 더욱 확대되었음.
 - 이 밖에 2004년 하반기 이후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 2005년 4~8월 주식 비중이 소폭 확대되었고 대출채권의 비중은 17%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부동산 점유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
- 2005년 8월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6.0%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말 대비 3.0%p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.

<표 III-24> 손해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8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현·예금 등 | 28,086 | 21,483 | 20,300 | 18,434 | 18,437 | 17,345 |
| | 10.0 | 6.6 | 5.7 | 4.7 | 4.4 | 3.8 |
| 유가증권 | 126,478 | 171,917 | 182,821 | 205,462 | 231,938 | 250,340 |
| | 45.1 | 52.5 | 51.7 | 52.9 | 53.4 | 56.5 |
| - 주 식 | 17,427 | 28,241 | 17,900 | 29,044 | 28,866 | 32,416 |
| | 6.2 | 8.6 | 5.3 | 7.5 | 6.9 | 7.2 |
| - 채 권 | 74,865 | 97,620 | 122,732 | 124,573 | 149,141 | 164,664 |
| | 26.7 | 29.8 | 35.3 | 32.1 | 34.3 | 36.5 |
| - 수익증권 | 23,751 | 29,217 | 17,295 | 21,124 | 22,145 | 23,762 |
| | 8.5 | 8.9 | 4.9 | 5.4 | 5.1 | 5.3 |
| - 기 타 | 10,435 | 16,839 | 24,894 | 30,721 | 31,786 | 29,498 |
| | 3.7 | 5.1 | 6.2 | 7.9 | 7.3 | 6.5 |
| 대출채권 | 38,159 | 45,907 | 58,569 | 67,888 | 76,673 | 78,586 |
| | 13.6 | 14.0 | 16.6 | 17.5 | 17.6 | 17.7 |
| 부 동 산 | 28,639 | 31,019 | 31,232 | 32,489 | 33,760 | 34,456 |
| | 10.2 | 9.5 | 8.8 | 8.4 | 8.1 | 7.8 |
| 운 용 자 산 | 221,362 | 270,326 | 292,921 | 324,273 | 360,809 | 380,726 |
| | 78.9 | 82.6 | 82.8 | 83.5 | 83.0 | 86.0 |
| 비운용자산 | 52,928 | 49,426 | 50,531 | 51,176 | 58,276 | 62,178 |
| | 18.9 | 15.1 | 14.3 | 13.2 | 13.4 | 14.0 |
| 특별계정 | 6,200 | 7,515 | 10,231 | 12,780 | 15,635 | 15,335 |
| | 2.2 | 2.3 | 2.9 | 3.3 | 3.6 | 3.5 |
| 총 자 산 | 280,490 | 327,267 | 353,683 | 388,229 | 434,720 | 450,522 |
|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

주: FY2002년의 경우, 알리안츠손보,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.
 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.
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라. 경영효율

- FY2004 손해보험회사들의 합산비율은 100.8%, 2005년 4~8월의 경우 98.3%로 나타나 보험영업 효율성이 제고되는 추세임.
- FY2004에는 사업비율의 하락으로 합산비율이 개선되었던 반면, 2005년 4~8월에는 전 종목에서의 손해율 개선으로 합산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.

<표 III-25> 손해보험 합산비율 추이

(단위 : %)

| 구 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4~8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경과손해율 | 82.4 | 80.9 | 72.9 | 77.6 | 77.7 | 76.2 |
| 사업비율 | 24.9 | 26.0 | 25.5 | 24.3 | 23.1 | 24.3 |
| 합산비율 | 106.9 | 106.8 | 98.4 | 101.9 | 100.8 | 98.3 |

주: 1)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실적임.

2) 2002년의 경우, 알리안츠손보,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.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-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을 살펴보면, FY2004에는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의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.
- 장기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증가액 증가로 전년 대비 5.5%p 증가한 87.9%를 보임.
-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4.0%p 감소한 72.7%의 손해율을 나타내었음.
-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은 태풍 등 대형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, 2005년 이후에는 보험료 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음.

- 보증보험의 경우, IMF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보증보험을 인수하지 않는 등 언더라이팅 강화 정책에 따른 손해율 관리로 안정적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음.

<표 III-26> 손해보험 손해율 추이

(단위 : %)

| 구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4~8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전체 손해보험 | 82.4 | 80.9 | 72.9 | 77.6 | 77.7 | 76.2 |
| 보증보험제외 | 82.6 | 76.3 | 74.3 | 79.2 | 79.7 | 78.0 |
| 보증보험 | 79.5 | 208.3 | 42.0 | 44.1 | 25.3 | 26.8 |

주: 1)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.

2) 2002년의 경우, 알리안츠손보,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.

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.

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<표 III-27>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추이

(단위 : %)

| 구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4~8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화재보험 | 67.1 | 51.1 | 54.3 | 61.7 | 56.4 | 41.5 |
| 해상보험 | 46.4 | 46.0 | 51.6 | 57.7 | 49.5 | 46.0 |
| 자동차보험 | 73.2 | 67.6 | 68.4 | 76.7 | 72.7 | 72.6 |
| 보증보험 | 79.5 | 208.3 | 42.0 | 44.1 | 25.3 | 26.8 |
| 특종보험 | 56.8 | 53.8 | 47.5 | 57.8 | 52.0 | 43.2 |
| 해외원보험 | 78.9 | 57.8 | 50.4 | 47.5 | 41.0 | 36.1 |
| 장기보험 | 90.9 | 84.2 | 81.5 | 82.4 | 87.9 | 85.7 |
| 개인연금 | 118.4 | 117.8 | 118.7 | 121.8 | 123.8 | 118.5 |
| 전체 | 82.4 | 80.9 | 72.9 | 77.6 | 77.7 | 76.2 |

주: 1)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.

2) FY2002년의 경우, 알리안츠손보,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.

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연감』, 각 연호.

손해보험회사, 『월말보고서』, 각 월호.

○ 손해보험의 손해율 개선 추세는 FY2005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어 2005년 4~8월 76.2%로 전년말 대비 1.5%p 감소하였음.

-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등은 전년도 손해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화재보험, 해상보험, 특종보험의 경우 보험료 성장에 기인하여 손해율이 다소 하락한 수준을 나타냄.

마. 판매채널

○ FY2004 손해보험 채널별 원수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, 방카슈랑스, T/M 및 C/M 등 신채널이 점차 확대되고 기존 설계사 및 대리점 등 전통채널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.

- 즉, 방카슈랑스는 장기저축성보험 판매가 허용되면서 FY2003 0.4%에서 2.0%로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며, T/M 및 C/M 등 온라인 채널의 점유율은 2.5%에서 3.0%로 증가함.

- 반면, 보험설계사 비중은 35.5%로 전년 대비 0.2%p 감소하였으며, 대리점은 49.7%로 0.9%p 감소하였음.

○ 이러한 추세는 FY2005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어 손해보험에서도 새로운 판매채널이 점유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-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2005년 4~8월간 점유율이 3.1%로 확대되었으며, 온라인채널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직급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35.7%를 나타내고, 대리점의 경우 전년평균 대비 2.3%p 감소한 47.4%를 보임.

<표 III-28>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4~8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회사직급 | 12,273 | 16,723 | 22,179 | 19,323 | 18,559 | 12,331 |
| | 7.4 | 9.1 | 11.0 | 9.3 | 8.2 | 12.2 |
| 보험설계사 | 78,619 | 72,880 | 74,411 | 74,465 | 80,439 | 36,070 |
| | 47.7 | 39.6 | 36.9 | 35.7 | 35.5 | 35.7 |
| 대 리 점 | 72,209 | 92,035 | 102,932 | 105,607 | 112,552 | 47,882 |
| | 43.8 | 50.0 | 51.1 | 50.6 | 49.7 | 47.4 |
| 중개인 | - | - | - | 1,791 | 2,123 | 1,091 |
| | - | - | - | 0.8 | 0.9 | 1.1 |
| T/M | - | - | - | 3,901 | 5,445 | - |
| | - | - | - | 1.9 | 2.4 | - |
| C/M | - | - | - | 1,168 | 1,426 | - |
| | - | - | - | 0.6 | 0.6 | - |
| 방카슈랑스 | - | - | - | 813 | 4,538 | 3,091 |
| | - | - | - | 0.4 | 2.0 | 3.1 |
| 공동인수 | 1,693 | 2,384 | 2,019 | 1,727 | 1,468 | 511 |
| | 1.0 | 1.3 | 1.0 | 0.7 | 0.6 | 0.5 |

주: 1) 각 하단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.

2) 원수보험료에서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.

3) 2002년의 경우, 알리안츠손보,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.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- 손해보험회사 모집조직의 생산성(모집조직당 원수보험료)은 모집조직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.
 - 임직원의 경우 FY2003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1인당 원수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일반손해보험의 저성장과 더불어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채널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.
 - 보험설계사의 경우 FY2004 장기손해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라 전년 대비 5.6% 증가하였고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임.

- FY2004 대리점 생산성은 전년 대비 11.8%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리점 수 축소에 기인하는 것임.

<표 III-29>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

(단위 : 백만원, %)

| 구 분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 | 2005. 4~8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임 직 원 | 53.1 | 77.6 | 106.2 | 91.1 | 84.3 | 49.9 |
| | -0.2 | 46.3 | 36.8 | -14.1 | -7.5 | 31.7 |
| 보험설계사 | 114.1 | 127.7 | 137.1 | 123.7 | 130.7 | 55.3 |
| | 43.0 | 11.9 | 7.3 | -9.8 | 5.6 | 8.2 |
| 대 리 점 | 135.4 | 172.7 | 202.3 | 219.0 | 244.9 | 104.5 |
| | 10.4 | 27.5 | 17.2 | 8.3 | 11.8 | 7.2 |

- 주: 1) 각 하단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.
 2)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.
 3) 2002년의 경우, 알리안츠손보,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.
 4)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= 임직원 원수보험료/임직원수
 5)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=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/모집인수
 6)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= 대리점 원수보험료/대리점수